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 이홍섭 기자 | Ⓞ 승인 2024.09.18 12:24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직원들, 농촌 집 고쳐주기 구슬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직원들은 최근 성주군 성주읍 농가에서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이돈문) 직원들은 최근 성주군 성주읍 농가에서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재단법인 다솜동지복지재단이 협력해 농촌 취약계층 노후주택 집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지붕에서 빗물이 새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처마밑 물받이가 없어 우천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된 집으로 장마와 태풍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정에 주택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성주지사 직원 15여 명은 습한 날씨 속에서도 지붕 공사와 처마밑 물받이 설치를 위해 깨진 기와장들을 옮기며 주택 내외부 정비에 힘썼다.

농어촌공사성주지사 이돈문 지사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직원들이 힘을 합쳐 더 나은 농촌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의미가 깊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집 고쳐주기 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와 기부금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농어촌공사 성주지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